떠오르는 START UP 꼬북샌드

거문도 쑥 디저트로… 여수 넘어 전국 프랜차이즈 꿈꾼다

거북선 모티브로 샌드과자 개발 작년 8월 창업
내달 연구개발·생산·체험 가능한 여서점 오픈
예술가 협업… 지역 담은 스토리텔링 제품 두각

여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을 모티브로 '여수 대표 먹거리 브랜드'에 도전장을 낸 청년 스타트업이 있다.

지난해 8월 여수시 교동에 문을 연 꼬북샌드(대표 김태우)는 '여수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디저트 만들자'란 목표로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활용한 거북선에서 영감을 받은 '샌드과자'를 개발해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부산 출신인 김태우 대표(31)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여수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관광명소로 떠오른 여수에서 창업을 꿈꿨다.

대학 졸업을 즈음해 때마침 버터 쿠키 사이에 부드러운 크림 치즈와 달콤한 시럽을 조합한 디저트가 SNS 등에서 붐을 일으켰다. 사업 가능성을 확인한 김 대표는 부산의 한 샌드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조법을 배운 뒤 여수에 가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여수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유명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지만 차별화된 제품은 많지 않다"며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거북선을 활용해 지역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명 꼬북샌드는 이순신광장에 있는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꼬북이'와 샌드과자를 결합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빠르게 샌드를 만들기 위해 '쿠키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쿠키'란 쿠키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이를 적용한 몰드와 압축기를 만들었다.

김태우 대표

꼬북샌드는 밀가루와 설탕 버터와 같은 1차 가공식품만으로 캐러멜, 쿠키 반죽, 쿠키, 크림치즈 등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 특히 낱개 밀봉포장, 박스 포장, 캐릭터 보냉백에 꼬북이 캐릭터를 넣어 기념품의 가치도 높였다.

귀여운 거북이 캐릭터와 바삭한 쿠키와 부드러운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샌드형 디저트'는 SNS와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면서 여수 관광 필수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쿠아플라넷, 해상 케이블카 등 여수 대표 관광시설과 한화 복지몰에 입점하며 브랜드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는 아쿠아플라넷의 특성을 고려, 휴대가 간편한 개별 포장 샌드 3종(캐러멜, 블루베리, 레몬)을 주력상품으로 내세웠다.

또 여수 특산물 중 하나인 거문도 해풍 쑥을 활용한 쑥샌드를 출시하며 지역 가치 창출에 앞장섰다.

꼬북샌드는 쑥샌드를 개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호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쑥샌드는 매장 방문객들의 재구매 비율도 높은 편이다.

김 대표는 "지역 식재료를 현대적인 디저트로 재해석한 브랜드라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며 "7~8월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200여명이 매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작가와 협업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여수 예술가들 모여라'란 공모전을 주관하며 여수와 관련된 모든 상품 아이디어를 받아 이순신 장군 캐릭터와 거북이·돌문어를 활용한 뱃지, 열쇠고리, 스마트톡 등을 만들었다.

꼬북샌드는 여수 주요 관광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디저트를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여수 여서동에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을 갖춘 복합 매장 '여수여서점'을 오픈한다. 이 매장은 제품 생산·판매 뿐만 아니라 지역 식재료 기반 디저트 개발, 체험형 클래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우 꼬북샌드 대표는 "'지역의 맛을 디저트로 연결한다'는 철학을 지키며 각 지역 스토리를 담은 제품을 만들어갈 것이다"며 "여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뒤 전국 각 지역 특산물과 캐릭터 IP를 결합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수험생 여러분 수고했어요"

의류·잡화 최대 30% 할인
파우치 등 사은품도 풍성

광주신세계 크록스 매장에서는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들에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스포츠 브랜드들은 13일부터 16일까지 할인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크록스'는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30% 할인을 제공한다. 'HDEX'는 20%, '푸마'는 러닝상품을 20~30%, '언더아머'는 10~30% 할인을 진행한다.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키플링'은 18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파우치를 증정한다. '코닥', '휠라'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양말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영패션 브랜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수험생 프로모션을 펼친다. '커버낫'은 전 품목을 10~30% 할인한다. '캉골'은 구매 고객에게 무료 담요를, '르마드'에서는 10만원 이상 구매시 니트(특정 상품에 한함)를, '마하그리드'는 헤비 아우터 구매시 머플러를 각각 증정한다.

본관 2층 '제이에스티나'와 '스톤헨지', '로이드'는 30일까지 수험생에게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판도라'는 15·25·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0·20·30% 할인 프로모션을 14일부터 23일까지 펼친다.

광주신세계가 준비한 수험생 프로모션은 행사 기간 내에 수험표를 지참한 본인만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수험생을 위한 풍성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많은 수험생이 방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aT, 대만 가오슝서 김치 정통성 알려

김장문화 체험행사 전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김치를 소개하며 김장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 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9만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만드는 체험에 큰 흥미를 보였다.

행사는 김장 체험과 더불어 한복 체험, 김치 캐릭터 4총사 컬러링 키즈존, 한국 지도 모양 포토존, K-Pop 댄스 체험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돼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그동안 김치는 빨갛고 매콤한 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재료와 양념이 달라 각양각색의 김치가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흥미로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워라밸 4.5 프로젝트' 논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11일 재단 3층 최상준홀에서 지역 주요 기업과 함께 '제1차 인사노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캠스를 비롯한 15개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이 참석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의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무관리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논의의 핵심 주제는 '워라밸 4.5 프로젝트' 도입 방안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했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